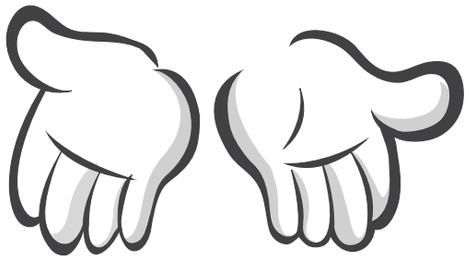


준비하세요!

중앙치매센터는「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치매 관련 서비스, 교육, 연구 및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나
치매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매품

발 행 처. 중앙치매센터
주　　소. (우)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삼평동 682) 유스페이스2 A동 308호
연 락 처. T) 1899-9988　F) 031-628-6848
디 자 인. Taeyoung TS　T) 031-8016-0051

Copyright ⓒ 2016 중앙치매센터
본 저작물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9 791186 007303 93510
ISBN 979-11-86007-30-3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면
치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치매센터

우리나라 어르신

3명 중 2명은

치매가 나와 관련이 없는
드문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2명 중 1명은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치매를 불치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에 대한
무관심과 무기력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 하세요!

**치매를 이겨내는 첫걸음은
바로 치매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분마다 1명씩 치매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65만 명의 치매환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우리는 100만이 넘는 치매환자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치매환자 증가의 심각성에 비해 치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식은 60점 수준으로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르신 3명 중 2명은 치매가 본인과는 관계가 없는 100명 중 1명 수준의 드문 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치매가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일만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치매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매인식도 조사 정답률]

26.8%
옛날 일만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오답 : 73.2%)

31.1%
노인은 100명 중
1명꼴로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오답 : 68.9%)

32.8%
부모가 치매환자면
자식도 치매에
걸리게 된다.
(오답 : 67.2%)

39.2%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오답 : 60.8%)

43.1%
치매환자는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오답 : 56.9%)

52.9%
치매는 혈액검사로
진단한다.
(오답 : 47.1%)

※ 위 제시된 모든 질문 문항의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출처 :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증상이 발생하고
처음 진단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2.5년

우리나라 17만 명의
치매환자들이
진단을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17만 명

*1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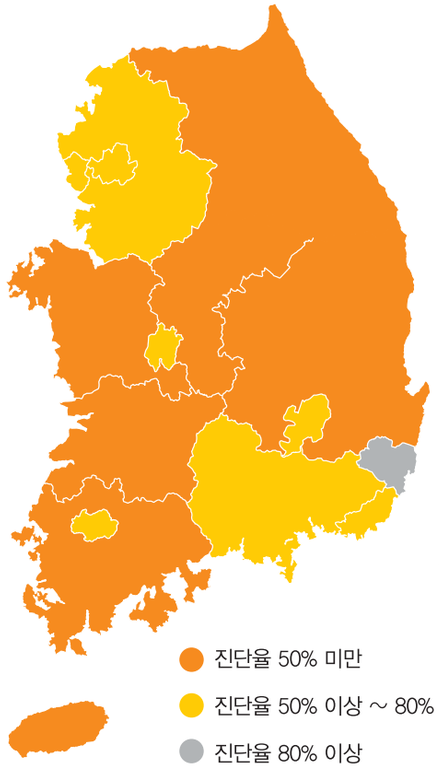
17만 명,
광주광역시
전체 노인인구 수와
비슷합니다.

준비 하세요!

치매는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가족 중에서 2명 중 1명은 부모님이 치매인데도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치매환자가 치매 증상이 발생하고 처음 진단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2.5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3명 중 1명은 아예 진단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매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을 택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호의 어려움으로 인해 살인을 택하는 간병 살인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별 치매 진단율]



진단율 50% 미만
진단율 50% 이상 ~ 80% 미만
진단율 80% 이상

치매가족

4,195,044

치매환자 수의
증가만큼,
치매환자 가족 수의
증가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치매환자

1,048,761

10년후

현재

치매가족

2,592,892

치매환자

648,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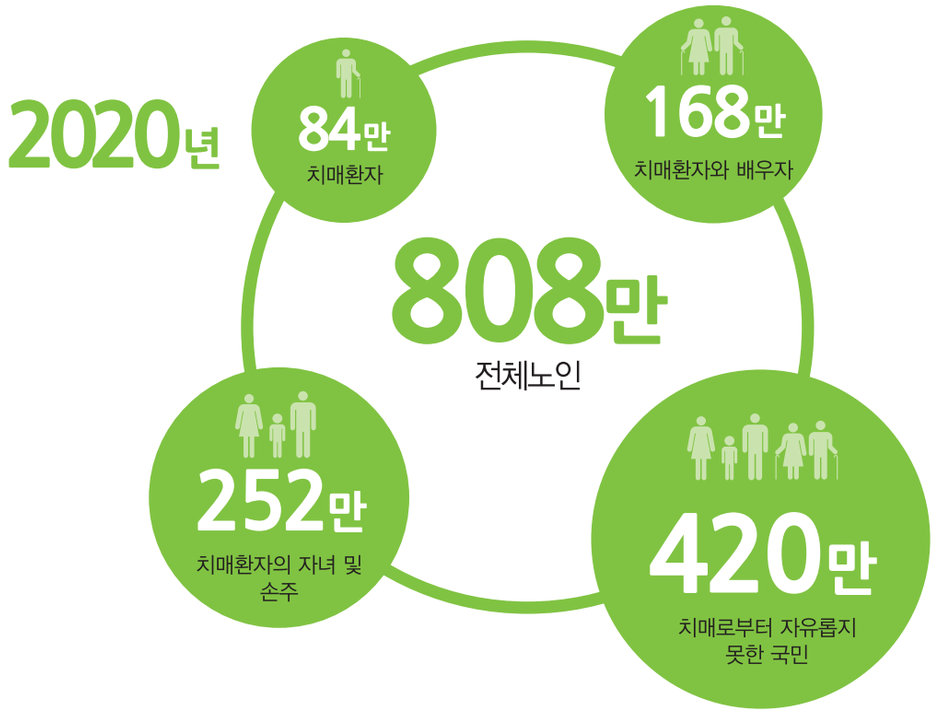
준비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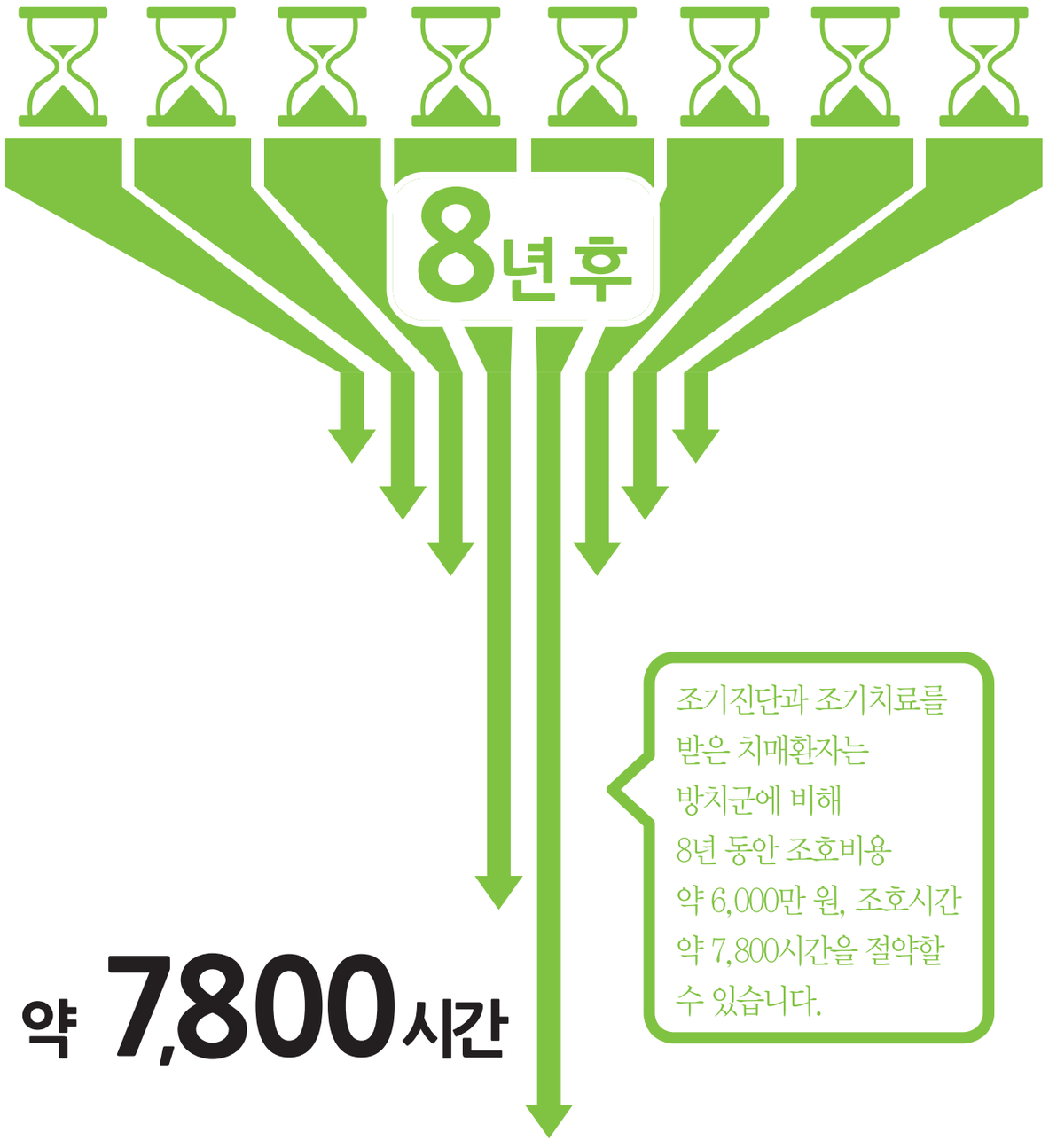
조기진단, 조기치료는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바꿉니다.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감에 따라, 치료비용과 조호시간 등 치매 환자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의 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치매환자와 가족 수]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수는 약 662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약 65만 명이 치매환자이고, 치매환자의 배우자 수까지 합하면 약 130만 명의 어르신이 치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해마다 크게 증가되어 2020년이 되면 약 808만 명의 전체 노인 중 치매환자는 84만, 여기에 배우자의 수를 합하면 약 168만 명의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치매환자를 부모님으로 둔 자녀수는 약 130만 명이고 2020년이 되면 약 168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또, 치매환자를 조부모로 둔 손주의 숫자도 현재는 65만 명이고, 2020년이 되면 약 84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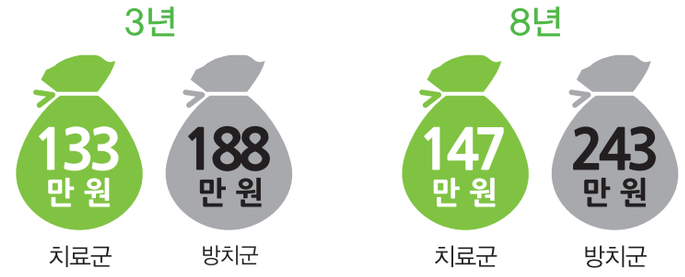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진단하고, 미리미리 치료하면 치매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인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치매 증상의 발병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발견을 통해 발병을 2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의 평균 중증도 역시 크게 감소합니다.

[조호비용]

방치군의 조호비용은 치료군에 비해 치매 발병 3년 후 매월 55만 원을 더 부담되게 되며,
8년 후에는 매월 96만 원을 더 부담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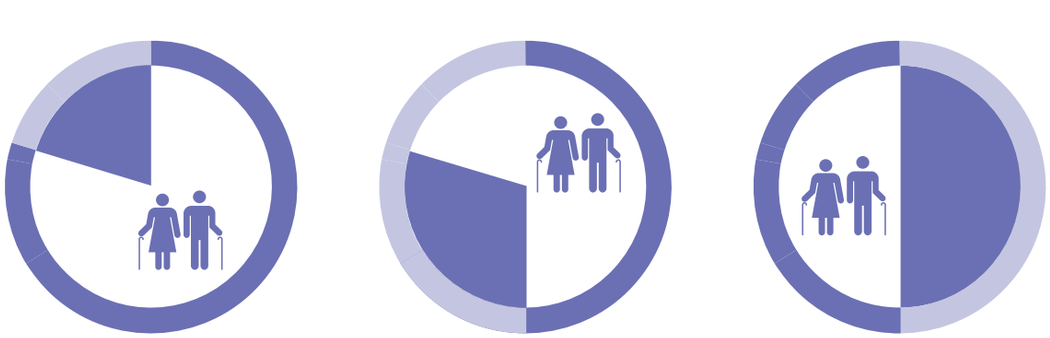


[조호시간]

방치군의 조호시간은 치료군에 비해 치매 발병 3년 후 매일 2시간이 더 소요되며,
8년 후에는 매일 4시간을 더 소요하게 됩니다.

‘치매조기검진’ 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세요.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아름다운 기억을 보다 오랫동안 간직하실 수 있도록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 무료검진을 해드립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병행하면



20%
완치가능

30~40%
예방가능

50%
중증화 지연

신청기관 보건소(서울은 치매지원센터)

www.nid.or.kr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실종치매노인지원사업, 치매전문교육,
치매극복 캠페인, 치매파트너사업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